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88호 【루게 제 25231호】 주 105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현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선주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현지도하시었다.

최룡해 동지, 전일춘 동지, 조용원 동지, 김여정 동지, 김창광 동지, 김병호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해당 부문과 상점, 종합봉사기지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미래상점을 현지도하시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내세워주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는 사랑에 떠받들려워 뭉치수려한 보통강기술에 미래상점이 몇 쌍이 건축물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에 개점한 미래상점을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보다 더 훌륭한 상업봉사기지로 전면시켜주시기 위하여 몸소 명당자리에 위치도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군인건설자들은 확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없는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미래상점을 새로 건설하고 개점준비를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미래상점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새로 건설된 종합봉사기지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상점과 대형되게 현대적인 규양 및 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춘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봉사기지를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색있게 꾸려진 사실들과 남녀복욕탕, 물놀이장, 리밭실, 미용실 등 봉사기지의 곳곳을 돌아보시고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시공의 질에 있어서 나무랄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운영준비를 잘하였다고 래양질을 맞으며 문을 열라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의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설계와 시공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말 잘했다고 대단족을 표시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을

뜻을 받들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어려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1월 몸소 상점을 찾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상점에 모시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러난다고, 장군님의 넉넉대로 상점운영을 잘하자고 하시면서 상점의 이름을 <미래상점>으로 명명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상점이 본래보다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 우리 나라 상업봉사부문의 본보기로 꾸려짐으로써 상점에 어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더 잘 받들어갈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상점을 돌아보시면서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매장들마다에 우리가 만든 화장품, 일용품, 전자제품, 식료품을 비롯한 갖가지 질 좋은 상품들이 꼭 차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상점은 하나의 문화생활공간인것만큼 상품전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미래상점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상품전열을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잘한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미래상점을 상업봉사기지의 본보기답게 잘 꾸었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이렇게 하나 하나 늘어가니 얼마나 기쁘지 보셨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상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은 인민들의 요구가 곧 봉사활동의 기준이라는 관념밑에 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며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빨리 구해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운영준비를 완벽하게 갖춘것만큼 하루빨리 상점문을 열어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들도 찾아와 마음껏 상품을 사가도록 하게 하라고

말하 진행한 단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운영하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의 총독이라는 자각을 안고 봉사활동을 잘해나감으로써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우리 나라 봉사부문에서 제일 모범적인 단위로 되게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정론 조선의 최강의 힘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혁명이 있다.

폭풍속에서도 흠이질줄 모르고 천백배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강철의 대오가 있다. 감히 우리의 삶과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 버리고 최후발악하는 원수들과의 포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있는 이 시각 선군조선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불피성은 무엇인가. 태양을 응위하여 천안이 백백만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준엄에 도전해나선 특대형도발자들을 백두의 붉은 칼날로 찔러 찌르시던 기세로 수명결사옹위성전에 총검기해나선 오늘의 백두산대국의 민심이다. 천백배로 다져진 정의의 힘으로 불의를 불사르며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의 정화를 옹호고수하려는 반세계계급투쟁의 최전선-조선의 대답이다.

1

자주나 예속이나, 전진이나 평화나 하는 함으로 전제없는 최극단의 상황이다.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의 장풍이 사상최대로 날카롭게 선 반세계계급전의 시대이다.

원수들이 제재와 압박의 광풍을 몰아오다 못해 이 무슨 《참수자전》과 《영양명》까지 떠벌이며 우리의 최고준엄을 모독하려드는 오늘의 최악의 폭발계선에서 조선은 어떤 배심, 어떤 필승의 본래로 폭풍쳐 내달리고있는것인가.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친 천민의 힘 당장자 이 세상에 없다!

수명결사옹위성전에 총검기하여 천하 무도한 적들을 도발광풍을 무지비하게 짓궂게버릴것이다!

이 나라 남미로소모부의 가슴속에서 불길치는 이 의지를 담고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어 확산선언마당 세계에 울려퍼졌다.

결사옹위의 힘!

이것으로 우리는 원수들을 기절총공해 하고있으며 이 신심으로 혁명의 세한 불미함을 일으키며 승리를 확신한다.

이 땅의 공기도, 이 땅에 흐르는 시간도, 이 땅에 울리는 하나의 노래선들도 결사옹위의 지대한 승리를 찬양한다.

보라, 수명결사옹위성전을 맹약하며 단 이틀동안에도 무려 150여만명의 인공돌과 근로청년들, 대학, 고졸중학교 학생들이 인민군대인태와 복대를 열렬히 단련해나선것을.

천진한 이 나라의 아이들마저 복수의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는것을.

그야말로 온 나라 장성이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지대한 화산대가 되어 뜨겁게 끓어번진다.

선군조선의 전선에서 정의의 적정점이 서리발한다.

방수복을 벗긴 민적의 포신들이 대공을 불어올릴듯 치솟아오르고 원수들이 침략의 불을 지르다면 미본토의 백악관과 펜타곤, 월가의 전경히스테리콜을 일거에 멸살시킬 무지비한 정병이 준비된다. 조선인민군 전각과 장병들의 황학 타는 증오의 눈길에 인 양되어 최첨단공격수단들이 정밀정찰에 돌입할듯... 사대제국의 색은 커를 대 굴러온 민족의 사악한 무리들을 써도 없이 감도에서 말뚝 갈살할진 통쾌한 통일단 이 장되어 천수들을 전멸케 한다.

충정의 70일전투의 철야근군에서 타오르는 증산의 열풍도 수명결사옹위의 불꽃영웅이 당 제7차대회에 향한 인민의 영웅적전군외 그 모든 승리와 발전속도 이 원수적멸의 의지로 백동된다.

황금해의 파도를 헤가리며 어장으로 전 줄한 어모공들이 태양을 감히 끌어내리겠다고 날리는 간악한 원수의 무리들을 한기 땅에 다 잡아치울 기세로 그들을 끌어당길 때 우리의 광부들은 제정속에서 무위한들을 치박겠다고 버트며 악암기틀 총검미양 더욱 오르고있어 불어온다. 한평 땅을 걸기 이온 순박한 연백의 녀성농민마저도 가을도 아닌 이때 낫을 시러하게 버려놓고 부르짖는다.

《천하의 불망종들이, 어서 이 땅에 오라, 죽으러 오라 말이다!》

정병 백보다 장하다. 일시에 들고일어나는 수명결사옹위의 이 기상이면 지구의 자신도 떨쳐서우리라. 쌓이고쌓여 하늘에 닿은 이 사무친 불노가 그대로 먹구름을 뚫어 날리며 추겨쳐우를 우리의 핵탄두가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세가 아무리 엄중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리매 천검만검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무릅쓰지 않으며 절멸 못할 요새가 없습시다.》

인류력사에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불사르기 위한 정의의 성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수명부위를 조국연명의 보검으로 간주하고 목숨걸고 성전에 펼쳐나선 인민은 있어 보지 못하였다.

천인민적인 수명결사옹위성전! 이런 맑은 오직 조선에만 있다.

수명결사옹위로 혁명의 첫걸음 내고 력사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며 백승의 대로 만을 열어온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속에서 만 올리는 신병이요 의지이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 그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천위부사들의 모습이 오늘날 태성산 주작봉마루에서 빛나고있다.

혁명승가 《조선의 별》을 심장으로 부르며 백색레오가 살판치는 살벌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인성을 보위하는 방패가 되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도 결사옹위의 단란을 날렸던 항일혁명선열들, 눈보라치는 만주광야, 전염결승 원수의 주검을 타고 넘으며 그리도 용맹했고 가슴쥐고 나무 밑에 쓰러져어도 수령님가까이로 넘어가도 가고진 부사들의 모습은 오늘날도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직은 당도 없고 정권도 없던 혁명의 리명당이 벌써 그들은 수명도 무소모다 귀중한 하늘이라는것을 깨달은 혁명의 선각자가 되어 결사옹위를 혁명력사의 첫 갈피에 피로써 아로새겼다. 어찌 청년공산주의자들뿐이라. 잊지 못할 교하의 녀인과 유영부명의 그 맑고맑은 이 나라의 마음들이 혁명의 초형결에서 태양의 노을로 빛났다.

천하의 불소나기속에서 최후결전의 엄숙한 시악을 하던 용사들 무엇을 위해 그리도 혼연히 죽음을 맞받아 용감히 나아갔던가. 그들이 파편번진 가슴을 무어안고 남긴 한결같은 마지막부락이 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건강과 안병이었다.

혁명의 간고한 역정의 시기마다 동상 이물, 양봉을위하고 지어 땅에 정면도전 해나선 더피운 종파의 무리들에게 철추를 내리며 수령님을 보위해나섰던 혁명 1세대의 가슴치는 혁심도 바로 그것이었다.

생각해볼수록 우리 당의 력사보다도, 우리 공화국의 나이보다도 더 오랜것이 수명결사옹위의 력사였다.

전후의 제대미를 헤치고 날아오른 천리마도 그 전봉의 혁명에서 태어났고 그 정신에 받들려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이 솟아났다.

오늘도 7월에는 우리앞에 있이라!

조국앞에 미증유의 난국이 증중침첩 가 로놓였던 1990년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한 인민군인들이 부르고부른 열매가 말해두듯이 우리 인민이 단련한 고난의 행군은 명실공히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행군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끝 수명결사옹위의 길이였으며 정화가 지킬수 없는 이 땅에서 당과 수령을 위해 보이지 않는 길에 한복을 시습없이 내민 유영부명의 영웅들은 또 얼마이던가.

수명결사옹위야말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결에서 생명선으로, 심장의 피를 거머쥔 굳건히 형성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승리의 전봉이요 삶과 투쟁의 영원한 방식이다.

수명옹위자 하나의 구조자가 아니라 불굴있는 민족의 정신, 폭풍에도 굽힘없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로 된것이야말로 조선의 크나큰 긍지이며 후손민대에 물려 줄 가장 큰 재보이다.

그렇듯 위대한 전통과 력사에 받들려 수명결사옹위의 보다 승업한 화폭이 이 땅에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다.

우리의 운명도 행복도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찔저녁 소원은 하나 그이의 인병 뿐이다.

12월의 피눈물의 바다에서 절연히 일며서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생는길에 나섰던 그때 감히 당의 명도를 거역하여 나섰던 현대관공파의 무리들을 백두의 붉은 칼로 단칼에 찍어버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최성처럼 리쳐던 노래 《우리는 당신앙에 모른다》.

불굴의 그 신념으로 지난해 8월에도 전정의 난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무전부활의 대승리를 이룩할수 있었것 아니었던가.

무력충돌로 치달던 일촉즉발의 시기 제국주의의 압제와 폭력으로부러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정의의 싸움에서 막강한 단결의 힘, 수명결사옹위의 위력으로 전정의 황화를 막아낸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던가.

그 나날 우리의 전선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모음이 열리고 맹세문이 채택되었음을 오늘날

그때의 가슴치는 구절구절들이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적들은 선군조선의 의지와 배방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최고준엄을 헐뜯는자들이 감히 어떤 못인지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고 삶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순간도 멀어져 못하는 우리모두의 피가 되고 뼈와 살이 되었다.

전선은 전선대로, 후방은 후방대로 애오라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병만을 비라는 불타는 마음을 최고사령부를 우러러 아뢰었거늘 그랴듯 뜨거운 진정을 한가슴에 안아보시며 우리의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천민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지난 며칠동안 전선지대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왔는데 그들은 편지에서 우리 한 수명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시던 우리 생명의 전부이고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나 너더러 마음을 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꼭 승리한다고, 원수님만 믿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편지들을 보면서 이런 위대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병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조선의 수명결사옹위의 력사이다.

전진이라는 극단한 상황에서 군대마저 총대를 내버리고 외세의 사환군으로 전락되던 광경을 인구는 얼마나 가슴아프게 바라보았던가. 지금 이 시각도 경제파괴와 재난을 피해 조국을 떠난 구슬은 피난민대뿐이 아니라, 저 나라로 그칠새없이 흘러들고있는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운명의 태양이 없으면 어둠의 현실은 약자가 되어 모래알처럼 흩어져버리는 법이다.

오직 지구상의 단 한 나라 조선만이 아직 그 누구도 체할해보지 못한 시련을 겪는 속에서도 세계의 거인으로 서줄 솜아 수명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한다.

수명결사옹위이자 최고의 단결이고 단결의 1세대의 가슴치는 혁심도 바로 그것이었다.

단결한 하나는 동지치 못한 백천을 능히 이긴다.

최근 여러 나라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조미대결전에 대해 평하면서 미국이 조선에 비해 엄청나게 큰 나라이지만 실제로 조선을 이길수 없다. 조선의 힘은 공천 힘이지만 미국의 힘은 분산된 힘이기때문에 조미대결전에서의 승패는 불모듯 변해다라고 말하고있다.

세기는 바뀌고 투쟁의 세대는 바뀌어도 일심단결의 구성원은 오직 하나 백두의 혈통을 만대어 이어 조선을 빛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조선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가장 엄숙한 의무이고 아름다운 비애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이며 최후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수명을 보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도 혁명도 조국도 인민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영광이 있다. 반제반미성선의 최후의 승리도 여기에 있고 인민의 모든 꿈과 행복도 여기서 꽃피어난다.

군대와 인민은 병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병도자는 인민의 신뢰를 혁명의 크나큰 재보로 간직하고 갖다드는 모든 민족을 일적에 적파하는 단결의 그 기성, 그 본래.

수명과 인민이 하나가 된 단결의 기성이자 곧 백천백승이고 천하제일강국을 향하여 질풍처럼리는 조선의 발전승수리이다.

2

신병이 있는 곳에 단결이 있다.

민는 마음이 없으면 공될수 없고 끌리지 않음도 따를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는 마음, 원수님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현실의 의지, 이것이 우리의 단결의 본질이고 백천백승의 원리이다.

천력과 폭력으로써 취할수 없는것이 인민의 마음이며 황금으로 살수 없는것이 인민의 정성이다. 인민은 자기를 한몸에 안아주고 사랑해주며 운명을 같이 지켜주는 그런 병도자에게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며 온몸과 생명까지도 통째로 맡긴다.

한편의 노래가 인민의 그 마음이라고 강산에 메아리친다.

...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 거라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민들이 태양을 따르는것은 태양의 빛과 열이 소생의 활력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는 원수님을 믿고 따르는것은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민들이 태양을 따르는것은 태양의 빛과 열이 소생의 활력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는 원수님을 믿고 따르는것은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노래에도 있었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마음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키워준 입심의 꽃이다.

작전을 펼치시는 위인의 장인장대한 배방을 그대로 원수들에게 퍼붓는 불소나기이다.

포탄이 튀는 가렬한 천하의 불비속에서 정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보아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모습, 총포성없는 치열한 대결전에서 청룡다리(2단계)와 금룡2등물건을 명명하시던 백두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의 승업한 영상을 오늘 우리는 다시 떠올린다.

그래서 세상이 제일 강한 천하제일의 배방이신 그이를 우러르기만 해도 인민의 마음엔 무쇠가동이 굳건히 자리잡는다. 우리는 오늘날도 매일도 영원히 승리하리라 는 억척불편의 신념이 융용출한다.

그이의 그 사랑이 생명의 빛이 되고 위대한 수호자의 그 힘이 운명의 열매이 되었기에 우리 원수님과 인민은 가를레야 가를수 없는 한생명제, 한심장이 되었다.

혁명의 수뇌부는 우리모두의 심장이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자기 운명에 대한 투철한 자각이며 확신이다.

수명결사옹위를 이 나라 인민모두가 삶의 근본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수명을 지켜야 인민이 살고 나라가 있고 후손민대가 번영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렇게 우리 원수님을 목신에도 기꺼이 오르시어 날바다를 뚫쳐 가시었고 흰눈덮인 마시평을 찾으면서서는 공중사도복 따시고 운명의 안전성을 온몸으로 검증하시었다.

운명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그이의 모습은 인민의 눈동자에 제일 어려울 때 선함으로 떠오르는 어머니모습이었고 가장 힘들 때 곁에 서주는 마음의 기둥이시었다.

공포의 새 선경거리로 찾아, 파선망의 폐허를 찾아 그렇게 몇번이고 거를 이어가신 하늘길, 명검을 우러러 인민은 그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는가.

당의 뜻을 받들어 기어이 풍요한 대지를 펼칠 결의를 안고 씨앗을 뿌리는 농민들도, 저기 저 제방에서 전제없는 생산성과를 기록하는 광부들도 마음속에서 총대를 짠 수명옹위의 전무원들이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원수님을 응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 때라도 분발하게 된다는 만부들의 고백은 이 정신으로 높낸다.

그 불꽃위는 전초선들에서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때리는 한초한초는 무엇을 호소하고있는가.

오늘의 불분초초를 수명결사옹위의 원군 같은 시간으로 이어나가지.

어머니당을 따라 한생토록 대를 이어 총정의 일편단심 변함없으리

기사 《로동당시대의 참된 공산주의인간, 공산주의가정》의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정치적인신념으로 간직되고 혁명적열심과 도덕적의리에 기초하여 생활화될 때 가장 순결하고 공고함으로 빛을 띠웁니다.》

《로동신문》 3월 21일부터 실린 기사 《로동당시대의 참된 공산주의인간, 공산주의가정》은 독자들에게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

키고있다.

누구나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은 도시경영 부문의 한 초소에서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3대를 이어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는 신의주물정화사업소 위생시설수리공 최정순녀성과 가정에 대한 기사를 감동깊이 읽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가 보지않던 스스로 당일에 다진 맹세를 한생토록 지켜갈 지향과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우리 당이 바라는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이 필수 있다는 것을 기사를 보면서 다시한번 느꼈다.

지금 우리 도시시설사업소 일꾼들과 모용자들은 최정순녀성의 가정이 지닌 공산주의적품성과 모용자들의 도시의 열광과도 못지않은 최정순녀성의 가정에서 느끼는 감동과 애정이 한평생을 바쳐갈 불타는 결의로 넘쳐 있다.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어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

나와 형제들은 지난 수십년간 교향산천을 가꾸어오면서 오직 참된 행복을 지닐 때만이 당이 맡겨준 초소를 한생토록 대를 이어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

나와 형제들은 지난 수십년간 교향산천을 가꾸어오면서 오직 참된 행복을 지닐 때만이 당이 맡겨준 초소를 한생토록 대를

이어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

나와 형제들은 지난 수십년간 교향산천을 가꾸어오면서 오직 참된 행복을 지닐 때만이 당이 맡겨준 초소를 한생토록 대를 이어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

나와 형제들은 지난 수십년간 교향산천을 가꾸어오면서 오직 참된 행복을 지닐 때만이 당이 맡겨준 초소를 한생토록 대를

이어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

나와 형제들은 지난 수십년간 교향산천을 가꾸어오면서 오직 참된 행복을 지닐 때만이 당이 맡겨준 초소를 한생토록 대를 이어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

나와 형제들은 지난 수십년간 교향산천을 가꾸어오면서 오직 참된 행복을 지닐 때만이 당이 맡겨준 초소를 한생토록 대를

한 생을 공산주의 어머니처럼

지난 21일부 당보에 실린 기사 《로동당시대의 참된 공산주의인간, 공산주의가정》을 정갈 감동깊게 보았다. 나와 같은 도시시설사업소의 모용자들의 인생에 대한 기사에서 그런지 남달리 흥분도 격정도 있었다.

지금도 못나서내지시는데 다른 일은 무엇이든 다하겠지만 이 일만은 못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최정순녀성에게 오면 당원인 적임반장이 했다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어버니수령님께서는 오늘을 제하고 도시를 깨끗이 하는 일은 인민들에게 복무하는 영예로운 일이라고 가르쳐주셨다.》

정말 우리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는 이야기이다.

지난 25년간 시에서 도로관리를 해온 나에게는 최정순녀성과 같이 자기 직업을 놓고 고민을 한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앞서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인민을 위한 일인데 좋고 나쁜 일이라 따로 있으라 하는

영원히 지켜가야 할

생각으로 한테 또 한테 나의 일러버를 지켜온 나같이 오늘은 더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비가 오는 날이 오니 일년사계절 도로를 관리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눈 일손이 비뚤고 눈비를 맞으면서도 온종일 도로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당과 수령이 바라고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일이다. 언제나 말이

당적분공

할 당적분공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하여 최정순녀성은, 자식들모두를 한초소에 세울수 있었으며 오늘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당원가정, 공산주의가정이 필수 있었다.

내가 일하는 신원감동초소도 당이 나에게 맡겨준 초소이며 영원히 지켜가야 할 당적분공이다.

수십년간 신원감동초소를 하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나 도 생각이 많았다. 아버지는

3부자운전사가 가정의 영예를

나는 수십년간 한직종에서 일 해오면서 늘 자신의 한평생을 당과 조국을 위해 바쳐가고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오늘 최정순녀성과 그의 가정이 발휘하고있는 공산주의적품성에 접하고보니 나 역시 두 아들들 한초소에서 일하고있지만 그들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향키고 바쳐 당을 받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깊어진다.

받아안은 사랑은 최정순녀성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다르다 없다.

나는 다시금 새겨보았다.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가정》... 이것은 바로 인민으로부터 받아안은 고귀한 칭호이며 당의 지시대로만 가지고 무조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값있는 무거운 것이다.

하다면 인류의 최고 이상인 공산주의는 부름이 어이하여 도시경영부문의 한 평범한 모용자의 가정과 굳건히 이어져있는 것인가.

빛내어겠다

수도리객운수국 사무소 로동자 김 장 학

수도리객운수국 사무소 로동자 김 장 학

수도리객운수국 사무소 로동자 김 장 학

수도리객운수국 사무소 로동자 김 장 학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입군들은 군중속에 들어 가 광범한 군중을 불러모으켜 그들이 대진군에 뛰어나 서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어느날 저녁 국산군 덕흥협동농장의 하루전 투쟁회모임에서 일이다.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6작업반의 농장원 최철국 동우가 가정에서 풀을 따는 때 한 짐쯤은 거름 2kg을 작업반에 배운 사실, 로동원들이 스스로 농장일을 도와나선 사실 등 그날에 있는 공적적소행이 소개되는데 모두 한 일군이 자라면서 일어났던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며 한

전투기록장의 부피가 두터워지게 된 사연

농장원이 알고있는 자기 분조원 한 줄씩 방걸을 걸으며 마련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고구려를 사실을 이야기하

었다.

뒤이어 다른 일꾼들도 차례에서 일어나 자기가 맡은 단계를 소개하는 차례로 소개행사를 이어가며 모두 전투기록장에 올라야 할 소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가 있었다. 비당일군은 새삼스럽게 앞에 놓인 전투기록장을 바라보았다. 정년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사람들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시간을 주름잡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백사적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구장군농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불꽃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로동자들

이렇게 얻어낸 하루의 전과는 결코 그날에 새로 부여된 주물들의 향과 질에 안 있지 않았다.

당일에 걸의다는데로 태양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투를 벌이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창조하자!

전공자의 방조와 한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면 동력설비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주도록 이들을 지원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당의 지시대로 일꾼들은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다.

수백°C의 고열이 이글거리는 로안에 들어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전투기록장의 부피가 두터워지게 된 사연

농장원이 알고있는 자기 분조원 한 줄씩 방걸을 걸으며 마련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고구려를 사실을 이야기하

었다.

뒤이어 다른 일꾼들도 차례에서 일어나 자기가 맡은 단계를 소개하는 차례로 소개행사를 이어가며 모두 전투기록장에 올라야 할 소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가 있었다. 비당일군은 새삼스럽게 앞에 놓인 전투기록장을 바라보았다. 정년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사람들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시간을 주름잡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백사적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구장군농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불꽃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로동자들

이렇게 얻어낸 하루의 전과는 결코 그날에 새로 부여된 주물들의 향과 질에 안 있지 않았다.

당일에 걸의다는데로 태양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투를 벌이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창조하자!

전공자의 방조와 한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면 동력설비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주도록 이들을 지원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당의 지시대로 일꾼들은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다.

수백°C의 고열이 이글거리는 로안에 들어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전투기록장의 부피가 두터워지게 된 사연

농장원이 알고있는 자기 분조원 한 줄씩 방걸을 걸으며 마련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고구려를 사실을 이야기하

었다.

뒤이어 다른 일꾼들도 차례에서 일어나 자기가 맡은 단계를 소개하는 차례로 소개행사를 이어가며 모두 전투기록장에 올라야 할 소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가 있었다. 비당일군은 새삼스럽게 앞에 놓인 전투기록장을 바라보았다. 정년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사람들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시간을 주름잡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백사적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구장군농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불꽃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로동자들

이렇게 얻어낸 하루의 전과는 결코 그날에 새로 부여된 주물들의 향과 질에 안 있지 않았다.

당일에 걸의다는데로 태양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투를 벌이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창조하자!

전공자의 방조와 한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면 동력설비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주도록 이들을 지원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당의 지시대로 일꾼들은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다.

수백°C의 고열이 이글거리는 로안에 들어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전투기록장의 부피가 두터워지게 된 사연

농장원이 알고있는 자기 분조원 한 줄씩 방걸을 걸으며 마련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고구려를 사실을 이야기하

었다.

뒤이어 다른 일꾼들도 차례에서 일어나 자기가 맡은 단계를 소개하는 차례로 소개행사를 이어가며 모두 전투기록장에 올라야 할 소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가 있었다. 비당일군은 새삼스럽게 앞에 놓인 전투기록장을 바라보았다. 정년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사람들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시간을 주름잡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백사적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구장군농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불꽃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로동자들

이렇게 얻어낸 하루의 전과는 결코 그날에 새로 부여된 주물들의 향과 질에 안 있지 않았다.

당일에 걸의다는데로 태양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투를 벌이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창조하자!

전공자의 방조와 한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면 동력설비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주도록 이들을 지원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당의 지시대로 일꾼들은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다.

수백°C의 고열이 이글거리는 로안에 들어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전투기록장의 부피가 두터워지게 된 사연

농장원이 알고있는 자기 분조원 한 줄씩 방걸을 걸으며 마련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고구려를 사실을 이야기하

었다.

뒤이어 다른 일꾼들도 차례에서 일어나 자기가 맡은 단계를 소개하는 차례로 소개행사를 이어가며 모두 전투기록장에 올라야 할 소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가 있었다. 비당일군은 새삼스럽게 앞에 놓인 전투기록장을 바라보았다. 정년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사람들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시간을 주름잡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백사적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구장군농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불꽃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로동자들

이렇게 얻어낸 하루의 전과는 결코 그날에 새로 부여된 주물들의 향과 질에 안 있지 않았다.

당일에 걸의다는데로 태양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투를 벌이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창조하자!

전공자의 방조와 한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면 동력설비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주도록 이들을 지원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당의 지시대로 일꾼들은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다.

수백°C의 고열이 이글거리는 로안에 들어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전투기록장의 부피가 두터워지게 된 사연

농장원이 알고있는 자기 분조원 한 줄씩 방걸을 걸으며 마련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고구려를 사실을 이야기하

었다.

뒤이어 다른 일꾼들도 차례에서 일어나 자기가 맡은 단계를 소개하는 차례로 소개행사를 이어가며 모두 전투기록장에 올라야 할 소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가 있었다. 비당일군은 새삼스럽게 앞에 놓인 전투기록장을 바라보았다. 정년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사람들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시간을 주름잡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백사적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구장군농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불꽃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로동자들

이렇게 얻어낸 하루의 전과는 결코 그날에 새로 부여된 주물들의 향과 질에 안 있지 않았다.

당일에 걸의다는데로 태양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투를 벌이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창조하자!

전공자의 방조와 한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면 동력설비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주도록 이들을 지원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당의 지시대로 일꾼들은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다.

수백°C의 고열이 이글거리는 로안에 들어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펼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전투기록장의 부피가 두터워지게 된 사연

농장원이 알고있는 자기 분조원 한 줄씩 방걸을 걸으며 마련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고구려를 사실을 이야기하

었다.

뒤이어 다른 일꾼들도 차례에서 일어나 자기가 맡은 단계를 소개하는 차례로 소개행사를 이어가며 모두 전투기록장에 올라야 할 소행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과가 있었다. 비당일군은 새삼스럽게 앞에 놓인 전투기록장을 바라보았다. 정년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사람들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작업반별 농사차와 관련한 근감산적들과 농장일꾼들과 농장일꾼들에게 발원된 공적적소행들이 소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전진작업공공 생산전장의 어느 한 사투이에는 유 다른 평안이 생겨났다.

어기에서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전진과 더불어 10여명의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에서 세기되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 많은 기술혁신과제와 장의고안

시간을 주름잡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백사적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구장군농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불꽃처럼 뛰어다니고 있다.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내성면리에서 뛰어라!>

로동자들

이렇게 얻어낸 하루의 전과는 결코 그날에 새로 부여된 주물들의 향과 질에 안 있지 않았다.

당일에 걸의다는데로 태양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전투를 벌이는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창조하자!

전공자의 방조와 한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면 동력설비까지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주도록 이들을 지원하여 줄것을 당부하는 당의 지시대로 일꾼들은 밤을 새우며 일하고있다.

수백°C의 고열이 이글거리는 로안에 들어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어쩌지 못하고 없이 로안에 들어있는것만 같았다.

